

#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성취도와 학과적응도와의 관계

최규일<sup>1</sup>, 이다현<sup>2\*</sup>

<sup>1</sup>충청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sup>2</sup>플러스 치과 매니저

##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Efficacy, Learning Flow, Academic Achievement, and Department adjustment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Gyu-Yil Choi<sup>1</sup>, Da-Hyun Lee<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ung Cheong University

<sup>2</sup>Manager, Plus Dental Clinic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 변인으로 진로 결정 효능감, 학습몰입,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메타인지, 성적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참여의사를 밝힌 200명의 학생들이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설문지 181부를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진로 결정 효능감, 학습몰입, 성적 세 가지 요인이 학과적응, 전공만족도, 전공확신도, 전공애착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 결정 효능감, 성적 두 가지 요인이 전공비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학습몰입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법, 교육환경과 같은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 결정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진로 및 취업 관련 교육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진로결정 효능감, 치위생과, 학과적응도,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efficacy,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self-administered surveys of 200 students who indicat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181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areer decision efficacy, learning flow, academic achievement affect to major satisfaction, major confidences, major attach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areer decision 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ffect to major vision. Some dental hygienists students need support systems such as learning method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commitment in order to help students adapt to their department.

In addition, education and career support for career decision efficacy should be continuously maintained.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Career decision efficacy, Department adjustment,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Learning Flow, Convergence

### 1. 서론

학과 재학생들과 상담 시 학과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학생이 학과 적응을 잘 했다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로 대학생활에서 여러 요소들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학생활 적

\*Corresponding Author : Da-Hyun Lee (dingu00@naver.com)

Received November 24,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January 7, 2019

Published January 28, 2019

응 관련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학과 적응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1], 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진로 및 취업 전망, 학업 동기, 학습 기술 등으로 나타났다[2]. 학과 적응에 실패하였을 경우 불안, 전과 의사, 계속된 갈등, 낮은 학업성취, 진로목표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학과 적응은 만족스러운 학업생활과 아울러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진로 발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3].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만 관심을 두었고, 학과 적응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하위 요소와 학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진로 결정 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과제 및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신념[4]으로, 학과 적응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전공학과 공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제 해결 전략인 메타인지, 학습 몰입, 자기 주도는 중요한 요소이다[5]. 전문대학생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자세가 결여되어있고, 학습 동기가 낮다. 또한 학습 방법에 훈련이 부족하다[6]. 따라서 전문대학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전문대학생은 학습에 대해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기도 하며[7], 결국 학과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전문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많은 양의 전공 관련 교과목의 수업을 수강하며 학습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부진 및 결손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8].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목표이며 객관적 지표로서[9], 학과 적응의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진로 결정 효능감,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몰입,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메타인지, 학업 성취도가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과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 및 학과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C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였고,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시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한 181부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충청대학교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IRB no.인간\_001\_20181130\_2차).

### 2.2 연구도구

#### 2.2.1 진로 결정 효능감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을 이은진[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요인 총 25문항(125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0$ 이다.

#### 2.2.2 메타인지

1994년 Schraw & Dennison이 개발한 성인용 메타인지 검사인 Meta cognitive Awareness Inventory(MAI)를 기초로 Shin 등[11]이 2005년 개발한 Jr. MAI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메타인지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0$ 이다.

#### 2.2.3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한국교육개발원(2003)에서 개발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척도를 대학생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2$ 이다.

#### 2.2.4 학습몰입

학습 상황 몰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몰입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기존의 국내의 몰입 척도 문항들을 토대로 석임복[12]이 제작한 것을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3$ 이다.

#### 2.2.5 학과적응

박성미[13]가 번안 및 수정하여 제작한 학과 적응 측정도구로서 학업성취, 학과 만족, 진로목표의 안정성 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취지에 맞게 각 분야의

문항을 전공 만족도(10), 전공 확신도(10), 전공 애착도(10개), 전공 비전도(8개)로 세분화하였다. Cronbach's  $\alpha = .941$  전공만족도 .882(10개), 확신도 .786(10개), 애착도 .811(10개), 비전도 .756(8개)이다.

### 2.3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 인구 특성에 따른 학과 적응 정도는 독립 T검정(t-test)과 일변량 분산 분석법(one-way ANOVA)으로 검정하였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의 다중비교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해 입력 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SPSS 18.0 KO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2학년 40.9%, 3학년 39.2%, 1학년 19.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97.2%였으며, 출신 교고는 인문계 이과출신 36.5%, 인문계 문과 35.4%, 실업계 28.2%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간 67.4%, 하 2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의 이유는 높은 취업률이 66.9%로 가장 높고, 주변의 권유가 17.1%, 자신의 적성이 8.8%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은 중이 85.1%, 하가 13.3%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 경로는 수시 1차가 45.3%, 수시 2차가 39.8%, 정시가 12.7%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1].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적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전공 확신도는 남자 38.20로 여자 30.08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 애착도도 남자가 38.40, 여자가 31.82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 비전도도 남자가 30.60, 여자가 26.16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 적응도도 남자가 147.40, 여자가 123.2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출신 교고에 따라서는 먼저, 전공 만족도는 인문계 문과가 36.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인문계 이과가 35.78, 실업계가 33.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 확신도는 인문계 문과가 31.25, 인문계 이과가 30.74, 실업계가 28.56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적응도에서도 인문계 문과 127.40, 인문계 이과 125.31, 실업계 117.70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의 경우 전공 만족도는 상 41.56, 중 35.96, 하 3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전공 확신도는 상 33.62, 중 31.0, 하 27.11, 전공 애착도는 상 36.43, 중 32.48, 하 29.02, 전공 비전도는 상 29.18, 중 26.65, 하 24.16 순이었고 학과 적응도는 상 140.81, 중 126.10, 하 11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입학경로 경우 전공 비전도는 특별전형 31.50, 수시 1차 26.70, 수시 2차 25.91, 정시 25.04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공 선택 이유는 자신의 적성이 39.81, 학문적 흥미가 39.80, 높은 취업률 35.28, 주변의 권유가 33.2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Variables		N(%)
Grade (n=181)	first	36(19.9)	Cause of Major Choice (n=181)	acceptability	8(4.4)
	second	74(40.9)		highest employment rates	121(66.9)
	third	71(39.2)		surroundings suggestion	31(17.1)
Gender (n=181)	man	5(2.8)	Economic Level (n=181)	aptitude	16(8.8)
	woman	176(97.2)		interest	5(2.8)
High School (n=181)	academic natural sciences	66(36.5)		high	3(1.7)
	academic liberal arts	64(35.4)	moderate	154(85.1)	
	vocational high school	51(28.2)	low	24(13.3)	
Grades (n=181)	high	16(8.8)	Admission course (n=181)	regular	23(12.7)
	moderate	122(67.4)		first rolling	82(45.3)
	low	43(23.8)		second rolling	72(39.8)
		special		4(2.2)	

Table 2. Academic adap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verage score±Standard Deviati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nfidences	major attachment	major vision	Academic adaption
Gender	man	40.20±7.42	38.20±5.71	38.40±6.58	30.60±5.36	147.40±23.86
	woman	35.16±5.80	30.08±5.40	31.82±5.66	26.16±4.55	123.24±19.37
	p(scheffe)	.059	.001*	.012	.034*	.007*
High School	natural sciences	35.78±5.38	30.74±5.51	32.33±5.90	26.45±4.46	125.31±19.28
	liberal arts	36.25±5.60	31.25±5.41	32.87±5.59	27.03±4.55	127.40±19.18
	vocational	33.49±6.53	28.56±5.52	30.50±5.63	25.13±4.74	117.70±20.28
	total	35.30±5.88	30.30±5.56	32.01±5.77	26.28±4.61	123.91±19.83
	p(scheffe)	.030* c<b	.026* c<b	.078	.085	.025* c<b
Grades	high	41.56±4.60	33.62±6.22	36.43±5.57	29.18±4.87	140.81±18.99
	moderate	35.96±5.23	31.00±5.32	32.48±5.62	26.65±4.51	126.10±18.52
	low	31.09±5.28	27.11±4.58	29.02±4.82	24.16±3.98	111.39±16.87
	total	35.30±5.88	30.30±5.56	32.01±5.77	26.28±4.61	123.91±19.83
	p(scheffe)	.000*** c<b<a	.000*** c<a,b	.000*** c<b<a	.000*** c<a	.000*** c<b<a
Admission course	regular	34.60±6.47	29.26±6.05	31.21±6.63	25.04±4.73	120.13±22.42
	first rolling	35.78±5.70	30.71±5.73	32.20±5.60	26.70±4.45	125.41±19.50
	second rolling	34.84±5.93	29.93±5.13	31.73±5.53	25.91±4.48	122.43±18.80
	special	37.75±6.29	34.75±5.85	37.50±7.32	31.50±6.75	141.50±25.33
	total	35.30±5.88	30.30±5.56	32.01±5.77	26.28±4.61	123.91±19.83
	p(scheffe)	.580	.247	.230	.046* a,c<d	.183
Cause of Major Choice	acceptability	31.75±6.51	28.00±5.07	30.50±5.45	25.12±5.40	115.37±20.60
	highest employment rates	35.28±5.41	30.14±4.87	31.55±5.40	26.21±4.25	123.19±17.70
	suggestion	33.22±6.91	27.61±6.21	29.93±5.02	23.83±4.18	114.61±20.62
	apitude	39.81±4.40	36.12±4.86	37.81±5.19	31.43±3.86	145.18±16.87
	interest	39.80±3.27	36.20±3.11	39.80±5.06	28.60±4.09	144.40±11.32
	total	35.30±5.88	30.30±5.56	32.01±5.77	26.28±4.61	123.91±19.83
	p(scheffe)	.001* a<e,d	.000*** c,a<e,d	.000*** c,a<e	.000*** c,a<d	.000*** c,a<e,d

합격가능성이 31.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확신도에서는 자신의 적성이 36.12, 학문적 흥미가 36.20, 높은 취업률이 30.14, 합격가능성이 28.00, 주변의 권유가 27.61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공에 착도는 학문적 흥미가 39.80, 자신의 적성이 37.81, 높은 취업률이 31.55, 합격가능성 30.50, 주변의 권유는 29.93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공비전도는 자신의 적성이 31.43, 학문적 흥미가 28.60, 높은 취업률 26.21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적응도도 자신의 적성 145.18, 학문적 흥미 144.40, 높은 취업률 123.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 3.3 진로 결정 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성취도가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 결정 효능감, 학습몰입, 성적, 자기주도, 메타인지가 학과적응도 및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결정 효능감( $\beta=.496, p<0.001$ ), 학습몰입( $\beta$

$=.346, p<0.001$ ), 성적( $\beta=.255, p<0.001$ )이 학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67.1%였다. 둘째, 진로결정효능감( $\beta=.292, p<0.001$ ), 학습몰입( $\beta=.443, p<0.001$ ), 성적( $\beta=.326, p<0.001$ )이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56.1%였다. 셋째, 진로 결정효능감( $\beta=.458, p<0.001$ ), 학습몰입( $\beta=.381, p<0.001$ ), 성적( $\beta=.203, p<0.001$ )이 전공 확신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52.8%였다. 넷째, 진로결정효능감( $\beta=.488, p<0.001$ ), 학습몰입( $\beta=.0247, p<0.01$ ), 성적( $\beta=.203, p<0.001$ )이 전공 애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60.6%였다. 다섯째, 진로결정효능감( $\beta=.596, p<0.001$ ), 성적( $\beta=.81, p<0.01$ )이 전공비전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58.8%였다. Table 3

Table 3. Sub-factors affecting department adaptation

Variables	Academic adapti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nfidences			major attachment			major vision		
	$\beta$	t	p	$\beta$	t	p	$\beta$	t	p	$\beta$	t	p	$\beta$	t	p
Career-decision efficacy	.496	8.400	.000	.292	4.330	.000	.468	6.542	.000	.468	7.631	.000	.596	9.106	.000
Self-directed learning	-.025	-.267	.789	-.140	-1.32	.191	-.159	-1.442	.151	.135	1.343	.181	.065	.918	.360
Learning Flow	.346	4.338	.000	.443	4.863	.000	.381	4.032	.000	.247	2.859	.005	.155	1.759	.080
Grade	.255	5.518	.000	.326	6.100	.000	.203	3.671	.000	.203	4.022	.000	.182	3.513	.001
Meta-cognition	-.035	-.533	.595	-.082	-.818	.414	-.026	-.335	.738	-.120	-1.666	.097	-.112	-1.519	.131
	R2=.671, F=71.281***			R2=.561, F=44.774***			R2=.528, F=39.158***			R2=.606, F=53.872***			R2=.588, F=49.981***		

#### 4.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 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진로 결정 효능감, 학습 몰입, 성적이 학과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결정 효능감, 학습 몰입, 성적이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 결정 효능감, 학습 몰입, 성적이 전공 확신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 결정 효능감, 학습 몰입, 성적이 전공 애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진로 결정 효능감, 성적이 전공비전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고찰

최근 대학마다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교육과정 및 도구의 개발과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학생의 학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과 적응은 전공 만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전공 만족은 성적과도 관련이 있다[14]. 전공 만족과 높은 성적은 학생의 흥미를 북돋아주고 성취감에 따른 학업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업 성취는 학과 적응의 첫 번째 준거로 볼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 성적과 학과 적응은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닌다. 성적이 높은 수록 학과 적응도가 높고 세부적으로 전공 만족도, 전공 확신도, 전공 애착도, 전공 비전도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높다. 이는 윤[16] 신[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비슷한 환경이라도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업에 흥미를 느끼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로 생각된다.

진로 결정 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과제 및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신념이다[18]. 본 연구에서 진로 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 적응도가 높다. 전공 및 학과 만족 등이 진로 결정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게 한다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19]. 대학에서 진로 준비는 전공에 적응,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자신에 대한 신뢰를 기반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학습 몰입은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 과정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이다. 최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학습과정과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학습자 관련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8].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학과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는 대학 적응과 학습 몰입이 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이[2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생이 몰입할 수 있는 학습 환경과 도구를 개발하는데 노력한다면 학과 적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공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따라 학과 적응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 학과 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문적 흥미, 높은 취업률, 합격가능성, 주변의 권유의 순으로 학과 적응도가 높다. 기존 연구에서 설문 예시로 취업의 용이성, 고교성적, 주변권유 등을 제시하는데[21] 본 연구는 자신의 적성과 학문적 흥미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치위생과 전공 선택에 높은 취업률과 주변의 권유가 주된 결정 이유인 것은 기존 연구 [21]들과 비슷하나 학과 적응에 연관성을 보면 자신의 적성을 고려했거나 학문적 흥미를 가지고 선택한 경우가 취업률을 보고 선택한 경우보다 학과 적응 점수가 높다. 현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듯 취업률은 전공 선택에

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취업률이 전공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학생의 경우 전공 만족도가 떨어지면 학과 부적응, 진과 고려, 휴학이나 자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치위생과에서는 학생 모집에 취업률의 강조와 더불어 적성 관련 요소나 학문적 흥미로움을 복돋울 수 있는 자극을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로 메타인지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과 적응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 메타인지는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지만 문제 해결 상황에서 자신의 인지 상태를 이해하고 계획 점검, 통제 및 조절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22]. 기존 타 학과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메타인지는 대학생활 만족, 전공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23,24].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박 등[25]의 결과와도 상반된다.

결론적으로,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학습몰입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법, 교육환경과 같은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 결정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진로 및 취업 관련 교육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 [1] D. U. Han, G. G. Jeon & C. H. Lee. (1991). Changes and Adjustment in Campus Life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9(1), 5-169.
- [2] D. U. Han, J. G. Tak, C. H. Lee, G. H. Lee & G. G. Jeon. (1993). Influence Factors and Processes of Maladjustment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10, 1-35.
- [3] S. M. Park. (2001). *Structural and Adaptive Analysis of the Departmental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4] Hackett C.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5] Graner R. (1987). *Meta 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Norwood. New-Jersey: A blex publishing corporation.
- [6] M. H. Cheong, S. M. Park & G. S. Shin.(2004). The Path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Major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1) 95-111.
- [7] S. I. Na, C. Y. Jeong, D. Y. Park, H. S. Lee, H. J. Han & K. H. Kim. (2002). The Development of a Modular Program to Enhance Learning Competencies of Junior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21(2). 141-163.
- [8] J. H. Lee. (2010).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 [9] G. H. Lee & J. Y. Kim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4), 33-57.
- [10] E. J. Lee. (2001).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1] J. H. Shin & H. S. Choi. (2005). Comparisons of Metacognition Tests in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Self-report versus Task-performance Tes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19(3), 615-631.
- [12] Y. B. Seok. (2007). *The Structure of Learning Flow: Scale, Character, Condition, Involvement*.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University, Daegu.
- [13] S. M. Park. (2001). *Structural and adaptive analysis of the departmental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Pusan.
- [14] S. J. Lee, Y. H. Lee & R. H. (2013). Influencing Factors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Focused o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 21-31.
- [15] Feldman, Kenneth A., John C. Smart & Corinna A. Ethington. (1999). Major field and person-environment fit: Using Holland's theory to study change and s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0(6), 642-669.
- [16] H. K. Yun, M. S. Choi. & W. S. Cho (2015), Effect of Self-Efficacy, Self-Elasticity, Major Satisfaction of Som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on Campus Life Adapt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6(1), 1-14.
- [17] S. H. Shin. (2015),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6), 1033 - 1041.

[18] D. W. Han, G. G. Jeon, J. K. Tak, C. H. Lee & G. H. Lee (1992). A Study On Life Mal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 Based On Anxiety , Depress And Somatizat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1), 447-462.

[19] S. J. Park & J. Y. Lee. (2011). A Study on Satisfaction of Major and Department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Police Science.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8(1), 123-146.

[20] S. J. Lee. (2011).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 235-253.

[21] J. W. Lee, H. J. Moon & M. S. Choi. (2009). The Research for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and adaptation of the stud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11), 3451-3457.

[22] J. H. Flavell. (1993). *Cognitive development (3rd Ed.)*. p.254-32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3] Y. Y. Hwang, C. S. Park & M. S. (2007). Chu, Correlations among Meta Cognition, Critical Thinking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Studying through Problem Based Learning(PB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1), 146-155.

[24] M. Y. Cho. (2015). Metacognition, Learning Style,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e Analysis Society*, 17(6), 3391-3405.

[25] H. S. Park & K. S. Jeong. (2013),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49-557.

이 다 현(Da-Hyun Lee)

[정회원]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15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2년 1월 ~ 현재 : 플러스치과 매니저
- 2012년 3월 ~ 현재 : 충청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치위생학
- E-Mail : dingu00@hanmail.net

최 규 일(Gyu-Yil Choi)

[정회원]



- 2001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0년 2월 : 경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충청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학, 치위생학
- E-Mail : edugy@hanmail.net